



발간자료

• **전략 Weekly:** 이익 측면에서도, 멀티플 측면에서도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8월 이후 형성되고 있는 약 6,200~7,000pt 수준의 박스권 등락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. 현재 수급 측면에서의 주도세력 부재. 적극적으로 익스포저를 확대할 상황은 아니나, 지수 저점대에서 반도체 관심 제고 가능. 고금리 완화 강세 상황 감안 시 증권 제외 금융업종을 방어적 대안으로 제시

(투자전략 조병현)

• **2차전지(Overweight):** 현재 국내 셀업체로 발주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3GWh/yr ESS 물량이 4Q26부터 삼성SDI,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되기 시작. Tesla Energy가 현지점 북미 ESS 사업자 1위임을 감안시 국내 셀 업체의 파이프라인이 SpaceXAI 및 Hyperscaler들과 직접연결되어 있음이 확인. 셀 업체에 대한 PBR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되고(현재 LG에너지솔루션 대비 삼성SDI 밸류에이션이 50% 할인거래, PBR 2.0배) 3Q26~2Q27에 ESS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삼성SDI를 선호주로 추천

(자동차/이차전지 유지웅)

• **레저(Overweight):** 8월 드랍액 롯데관광개발 3,364억원(YoY +20%), 파라다이스 6,805억원(+4%), GKL 3,414억원(+7%)으로 3사 모두 견조한 성장. 롯데관광개발·GKL은 낮은 홀드율로 순매출 부진했으나, 파라다이스는 일본·기타 VIP 성장으로 순매출 1,049억원(+32%) 기록. 큰손 영업 확대로 월 변동성은 커지는 추세 확인, 9~10월 중국 및 일본 연휴 효과로 드랍액 크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

(인터넷/게임/레저 김혜영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3.5%	HOLD : 6.5%	SELL : 0.0%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이상 ~ +15% 미만
- SELL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미만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

-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